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느헤미야 52일 기도와 금식 (5/10-6/30)”

Let's Rebuild Together

“성벽 공사는 오십이 일 (52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났다.”

So the wall was finished on the twenty-fifth day of the month Elul, in fifty-two days.

「느헤미야 6장 15절」

이 기도 가이드는 느헤미야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의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말씀을 붙잡고 포스트 코로나19의 교회 (특히 연합감리교회와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와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재건축하기 위한 느헤미야 52일 기도와 금식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매주 주일에 배포가 될 예정이며 이 기도문은 6일 단위가 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섹션은 도입과 생각해 볼만한 질문, 그리고 날짜별 핵심 구절 및 짧은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그 말씀 구절과 기도문을 바탕으로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Section 1 | DAYS 1-6 [5/10 월요일 - 5/15 토요일]

참회 Penitence (느헤미야 Nehemiah 1:1-11)

도입 Introduction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가난을 인식하고 우리는 참회할 필요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당한 환난과 능욕에 대한 소식은 비록 부와 특권에 둘러싸여 그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슬피 울며 기도와 금식을 하게끔 만든 개인적인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불순종했지만, 그것은 그의 죄였음을 회개합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공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 1:5).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환상적인 기도의 모델입니다.

Prayer is simply ‘asking God’, just as Jesus taught us,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Luke 11:9). To not ask is to not believe that we need anything, or indeed that God can give us anything! Furthermore, in asking God, we recognise our own poverty and our need for penitence. The personal impact that the news about Jerusalem’s ‘disgrace’ has upon Nehemiah is striking, even though he is distant from the reality, surrounded by wealth and privilege. It is a personal tragedy that moves him to tears, to prayer and fasting. It compels him to his knees before the God of Heaven. Although many others have been disobedient, it is his sin to confess! He cannot put the blame elsewhere. Furthermore, Nehemiah recognises the character of God as a God of loyal, covenanted love and mercy, who delights in receiving and honouring those who put their hope and confidence in him. This is a fantastic model of prayer for us all.

생각할만한 질문 A question to consider

여러분이 52일의 기도와 금식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참회하라고 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행한다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As you begin your 52-day journey of prayer and fasting, how in particular is God asking you to be penitent? What hope is God putting in your heart regarding how things could be different if you only trust God and act accordingly?

DAY 1 • 5/10 월요일 허물어진 벽들 Broken Walls | verse 3

느 Ne 1:3 (새번역)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They said to me, “The remnant in the province, who survived the exile, are in great trouble and disgrace. Jerusalem’s wall has been broken down, and its gates have been burned.” (CSB)

느헤미야의 시대에 성벽이나 문이 없는 도시는 궁극적으로 무력함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와 금식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교회, 가정, 다음 세대 모두 무너진 성벽처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In Nehemiah's time, a city without walls or gates was the ultimate sign of helplessness. Father God, as we begin this journey of prayer, we confess our need of you, and our helplessness without you. We confess that without God, we are bound to become like broken walls in churches, families, and the next generation. Oh, Lord, please help us!

DAY 2 • 5/11 화요일 슬픔과 간절함 Grief and Desperation | verse 4

느 Ne 1:4 (새번역)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When I heard these words, I sat down and wept. I mourned for a number of days, fasting and praying before the God of the heavens.

느헤미야는 그의 슬픔의 기도와 간구가 그의 매일의 삶에 소란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삼가게 하고 금식케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그분과 기도의 여정을 떠남에 따라 새로운 기도의 리듬을 갖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Nehemiah allows his prayers of grief and longing to disturb his daily routine. Is God challenging you to fast from something, or to adopt a new prayer rhythm, as you travel this prayer journey with him?

DAY 3 • 5/12 수요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God's Covenant Love | verse 5

느 Ne 1:5 (새번역)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I said, LORD, the God of the heavens, the great and awe-inspiring God who keeps his gracious covenant with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s

우리의 슬픔과 무력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도록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오늘 하루 중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주신 약속들과 응답해 주신 기도들을 기억해 봅시다.

DAY 4 • 5/13 목요일 애도 Lamentation | verse 6

느 Ne 1:6 (새번역)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살피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let your eyes be open and your ears be attentive to hear your servant's prayer that I now pray to you day and night for your servants, the Israelites. I confess the sins we have committed against you. Both I and my father's family have sinned.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슬픔을 함께 가지려 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눈으로 연합감리교회와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그리고 각 가정들과 다음 세대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분께 가장 큰 아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향한 애도의 기도가 되게 해 보십시오. Repentance starts when we dare to share God's sadness. Ask God to show you the UKI Salvation Army through his eyes - what brings him the greatest pain? Let your prayer today be a lament for the things he shows you.

DAY 5 • 5/14 금요일 고백 Confession | verse 7

느 Ne 1:7 (새번역)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 다 We have acted corruptly toward you and have not kept the commands, statutes, and ordinances you gave your servant Moses.

회개는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애도했던 영역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오늘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죄들을 밝히고 그리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Repentance is being specific about sin and asking forgiveness. Think back to your lament for the territory yesterday; today write it out as a prayer, naming the sins God showed you, and asking his forgiveness.

DAY 6 • 5/15 토요일 간청 Petition | verse 11

느 Ne 1:11 (새번역)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Please, Lord, let your ear be attentive to the prayer of your servant and to that of your servants who delight to revere your name. Give your servant success today, and grant him compassion in the presence of this man.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것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무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회개는 간청으로 이동합니다. 어제 여러분이 쓴 기도문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연합감리교회와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가정과 다음 세대의 갱신을 위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위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Repentance moves into petition, as we admit our inability to set things right without God's help. Read the prayer you wrote yesterday, and ask God to begin a new work of renewal in The Salvation Army.